

수도권으로... 영남으로... 민주 총선 쇄신바람 분다

기득권 포기, 호남 중진 차출 등 물갈이론 확산 조짐

전남 출신 3선인 김효석 민주당 국회의원(담양·곡성·구례)이 10일 수도권 출마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확산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비전 및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이 '호남 국회의원 물갈이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 교체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기득권 포기를 통한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물갈이론을 중심으로 한 쇄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권 및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례대표 진출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호남 중진 국회의원들의 추가 수도권 진출설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결단이 최대의 난제로 꼽혔던 '호남 국회의원 물갈이론'의 물꼬를 트는 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손학규 대표의 전날 밤 김 의원의 결심을 전해 듣고 "그런 결심을 해줘서, 물꼬를 터줘서 고맙다"며 호남에서의 '공천 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의 대표적 정책통,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지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꼽히던 김 의원의 결단으로 호남 중진들이 버틸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추후 일부 호남 중진의원들의 결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저항의 강도가 만만치 않아 이러한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호남지역 모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마녀사냥식으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호남 민심에 대한 모독"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물러날 수 없는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재선 및 중진 국회의원들은 '대안 부재론'과 '인재 육성론'을 내

세우고 있다. 적절한 교체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체에 나섰다가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국회의원에 대해 인위적 물갈이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호남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보여온 무기력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민주당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수도권 출마를 공언한 인사는 당 대표 시절 '19대 호남 지역 구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정세균 최고위원(진안·무주·장수·임실)에 이어 김 의원이 두 번째다.

또한, 최근 전북에서 4선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이 영남 출마를 선언했으며 수도권 재선 출신인 김영춘 최고위원이 부산 출마를, 수도권 3선의 원으로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도 고향인 대구 출마를 선택지에 두고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1 성공개최 기원 달리기대회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D-100일 기념 성공기원 달리기 대회'가 10일 영암 F1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 900여 명이 참여해 F1 머신이 질주하는 5.615km를 달렸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F1경주장 땅값 얼마?

F1경주장이 있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간척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1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부진한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감정평가액만 나오면 땅값을 결정할 수 있어 빠른 다음달 말까지 F1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조정회의에 농림식품부와 부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 대회운영법인인 카보 관계자가 모여 경주장 부지 감정평가에 대한 양측의 결과를 오는 11일까지 서로 통보하기로 했다.

송영종 전남도 투자정책국장도 지난 8일 오후 전남도의회 경제관공문화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F1경주장 부지 감정 평가액의 통보 시기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감정평가 특성상 2~3일간의 여유를 두기로 한 만큼 며칠 늦어질 수는 있지만 착석기관 모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카보가 각각 내놓은 경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10% 안에서 결정되면 그 감정가격에서 산술평균을 내 땅값을 확정하고 양측이 부지 양도·양수 절차를 밟게 된다.

총 부지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나머지 90%

부지 감정평가 결과 오늘 나올 듯

농어촌공-카보 양도·양수 탄력 기대

를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기로 했으며 잔금에 대한 이행보증은 보험증권을 발행한다.

평가액 결정과 보험증권 발행으로 양도·양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땅 소유주가 카보로 바뀌고 경주장 준공절차도 완료된다.

전남도는 이 경우 다음달 말까지는 양도·양수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은호 전남도 기업도시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시각차가 컸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을 결정했기 때문에 평가액도 순조롭게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무토 주한 일본대사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日기업 광주·전남 투자 적극 돕겠다”

박준영 지사·강운태 시장 잇단 방문... “원전사태 지역민 지원 진심으로 감사”

무토 마사토시(62)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박준영 전남도지사, 강운태 광주시장과 잇따라 만났다. 무토 대사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광주·전남지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주·전남과 일본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한국 등 아시아에 새로운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의 광주·전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일보는 8일 광주를 찾은 무토 대사를 단독 인터뷰했다.

-이번 방문 목적은.

▲광주와 전남은 일본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에 힘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 또 일본이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광주·전남이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구호물품과 성금을 보내주는 등 마음으로부터 걱정과 배려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찾았다. 이번 기회에 광주·전남이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차세대 최첨단 기술 및 스포츠웨어 공동개발, 광주 비엔날레 등 문화교류 등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40년 전인 지난 1972년 첫 방문한 뒤 지난 87년, 그리고 지난해 등 15년 정도 간격을 두고 광주·전남을 찾았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 발전하고

있어 흐뭇하다.

-후쿠야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지 여건은.

▲원전사태로 인한 피해가 마치 일본 전체에 미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 알려졌으나 피해는 극히 제한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럴 때 일수록 선대이나나 후쿠오카현 등을 찾아 주변 우호관계가 더 굳어질 것이다.

-광주·전남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경제구조와 가치관을 가진 유일한 파트너다. 올 상반기 일본의 한국 물품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나 증가했다. 특히 미쓰비시 등 대기업들의 한국 부품 수입이 2억 3000만 달러나 늘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20억 달러 수준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중견기업들이 대지진 이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생산기지 다각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개 정도의 회사가 대사관에 문의했다.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광주·전남의 기회도 더 늘어날 것이다.

-광주와 전남에 조언할 것이 있다면.

▲과거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의 성향을 잘 살펴보면 한다. 그동안 노사분쟁이나 대기업 간 경쟁 등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렸지만 이제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광주에도 대기업들이 있으니 부품이나 신소재 등의 수요를 따져 유치에 나서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을 대표해 지역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과 일본은 지금 국경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교류가 늘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세계 어느 국민보다 좋아하고 한류를 즐긴다.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배우는 관계가 구축됐으면 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블루베리의 모든것 가나안 블루베리



블루베리 농장주를 모십니다

가족의 건강 내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블루베리로

미음을 치유하는 블루베리 주안농장으로 투자 가치가 함께 하는 가나안 블루베리

요목 분양(기술 이전)

1. 광주 전남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품종 다수
2. 기술이전 및 꾸준한 판매관리



농장주 모집(등기 이전가능)

1. 2년생에서 6년생까지 생과 생산 가능
2. 혁신도시 인근 지가 상승기대및 생과 가격 수입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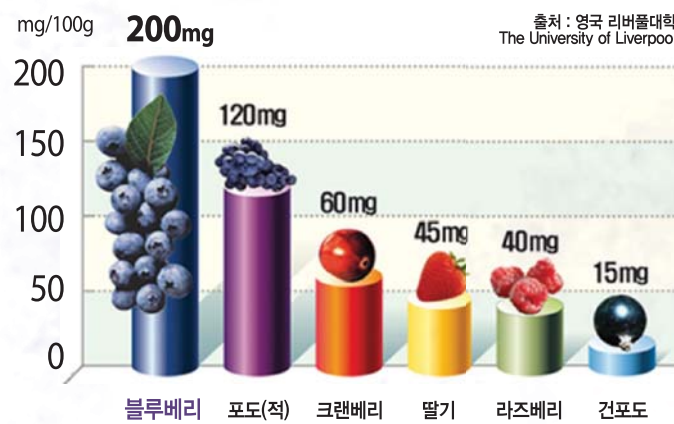
도트락 100%원액판매

제품명 : 도트락 블루베리
원재료명 및 함량 : 블루베리원액 100% (블루베리 농축액 18brix) 제조원 : 도두(해국)

• 18브릭스(brix)란?
일체 첨가물 없이 블루베리 생과를 1,000cc를 갈았을때, 800cc수분을 증발시키고 남은 원액을 말합니다.



안토시아닌 함량비교 그래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근접해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지가 상승기대및 생과 가격 수입 보장

대리점 및 가맹점 모집 문의 / 함께할 직원을 찾습니다

1661-0880 / 062-716-7000
010-9299-5679

블루베리 효능

신이 마지막으로 내린 선물 블루베리, 뉴욕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블루베리 효능 첫번째 과일 중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
블루베리 효능 두번째 노화 막고 기억력 증진 효과
블루베리 효능 세번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블루베리 효능 네번째 요로 계통 감염예방
블루베리 효능 다섯번째 시력 보호 및 개선작용
블루베리 효능 여섯번째 비타민 및 각종 미네랄 풍부
블루베리 효능 일곱번째 변비 및 대장암 예방에 특효

농업 법인 회사(유)가나안

최적의 입지 조건과 생산환경으로

최고의 블루베리 농장으로 조성

성공적인 작목기술 보유로 최고 품질

혁신도시 인근으로 향후 지가 상승효과

및꾸준한 수익으로 노후대책 가능



빛日만평

- 김중두



햇빛 가리는건 일도 아니다